

“민속학으로 본 한국인의 일생”

정종수 국립민속박물관 민속연구과장의 사무실 밖에는 정선의 <인왕제색도>가 펼쳐져 있다. 업무 틈틈이 눈만 둘러보면 인왕산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온다. 꽃피는 봄이면 봄대로, 눈덮인 겨울이면 겨울대로 인왕산은 가까이에서 그의 가장 절친한 연구 동료가 돼주었다. 1982년에 국립민속박물관에 들어왔으니 20년을 정선의 <인왕제색도>와 함께한, 대한민국에서 가장 멋진 사무실을 갖고 있는 사람인 셈이다.

“민속박물관에 근무하며 돈도 많이 벌었어요. 20년을 근무했으니 그동안 입장료 내지 않은 것만 해도 꽤 큰 돈 아니겠습니까.”

입장료 면제받은 혜택(?)을 조금이나마 갚기 위해 정종수 민속연구과장은 일반인들의 ‘민속’에 대한 잘못된 시각교정에 나서고자 한다. 민속은 사소하고 일상적이어서 하찮은 것으로 치부하고, 비합리적이고 미신화된 것이라 보는 것이 일반인들의 시각이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다’라고들 하지만 국내에 민속박물관은 국립민속박물관 한 곳뿐이라는 사실만 보아도 민속에 대한 우리의 시각과 대접이 어떠한지 알 수 있다는 것

이 그의 주장이다. <계룡산> <풍수로 보는 우리 문화 이야기>에 이어 그가 현재 집필중인 원고는 <한국인은 어떻게 살다 죽는가> (가제)이다. 민속학으로 본 한국인의 일생이라고 압축할 수 있겠는데, 한국인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겪게 되는

통과의례에 관한 책으로, 학교재에서 올 상반기에 출간할 예정이다. 집필의 출발점은 1998년 모 백화점 문화센터에서 강의한 <민속이야기 교실>이 토대가 되었다.

앞으로 발간될 책의 성격을 가늠할 수 있도록 잠시 책의 1장 ‘태어나기’ 부분을 살펴보고 넘어가자.

“(…)아이를 갖기 위해 삼신께 빌거나 명산대천에 가서 치성을 드리는 주술적 행위는 비밀비재하다. 뿐만 아니라 거목이나 부처님, 일월성신님, 옥황상제께 빌기도 하는데, 비는 날 수에 따라 삼일기도, 칠일기도, 백일기도 등으로 불린다. (…) 그리고 덕을 쌓거나 선을 베풀으로써 신의 감동을 얻어 아기를 얻고자 하였다. 대표적인 것이 경루에 찬 냇물을 건너다니는 사람들을 위하여 징검다리를 놓는 ‘노두놓기’이다. 또 공동우물을 청소하는 등





심을 못 끝 뿐입니다. 변하는 것을 직시해야지요. 우리가 사소하게 생각하고 지나쳐버리는 풍속의 본질에 대해 안다면 매사에 보다 더 정성어린 마음으로 임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가 밝히는 집필동기인 셈이다. 책의 마지막 장에 담길 한국인의 죽음에 대한 부분은 오래 전부터 그가 관심을 기울여 온 분야. 장례풍속에 대한 연구를 위해 그는 시간만 나면 전국의 초상집을 찾아다녔다.

“하도 초상집을 찾아다니니까 사람들이 저보고 저승사자라고 하더군요. 사실 우리나라 장례 풍속에 대한 연구는 앞으로도 더 많은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초상이 났다고 하면 바로 달려가곤 했는데, 요즘은 농협 홈페이지를 이용해 정보를 얻고 있지요. 농협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장의용품 파는 업체 연

락처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장의업체로 연락해 최근 어느 집에 장의용품을 팔았는지 물어보고, 집에서 초상을 치르는지, 호상인지, 뭐 이것저것을 알아보고 그 집을 찾아갑니다. 밤새 유족들과 함께 있다보면 자연스레 알게 되는 것들이 많지요. 사는 이야기도 초상집에서 들으면 더 생생한 법입니다. 염하는 것도 배우려고 했는데, 정말 어렵더군요.”

한국인들은 왜 개고기를 즐겨 먹게 되었는지, 고사상에 왜 꼭 돼지머리가 올라가는지, 폐백을 드릴 때 왜 어른들이 신부에게 대추를 던지는지, 일상화된 민속들의 숨은 의미가 궁금한 사람들이라면 기다려도 좋을 듯싶다. **한문**

취재 양선희 기자 | 사진 박신우 기자

남이 싫어하는 일을 하면 아들을 낳다고 믿었다. 우리의 기자(祈子)풍속은 아이를 갖기 위해 여자는 물론 남편과 가족까지 책임의식을 느끼고 그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했다. (…)” 그는 이처럼 아들을 낳기 위해 눈물겨운 노력을 해야 했던 한국 여성들의 삶과 출산 문화를 비롯하여 돌, 성인식, 결혼 문화, 장례문화까지 한국인이라면 거쳐야만 하는 통과의례를 민속학자의 시각에서 정리해 보고 있다. “풍속이라든가 민속은 물과 같아서 시간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바뀌지요. 제사 지내는 방식이라든가 결혼 풍속 같은 것만 보아도 조선시대와 비교하면 정말 많이 변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신부 집에서 했지만 예식장이 생기고 편리하니까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바뀌어버렸지요. 꼭 옛날 방식으로만 해야만 민속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지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양식도 민속입니다. 현대의 풍속은 일상화된 거라 관

